

전남도 내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운영

쓰쓰가무시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대학병원에 본부 위탁 관리...복지부에 국비 요청

전남도가 내년부터 지역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감염 전문가가 본부 운영을 받아 감염병 발생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23일 "메르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쓰쓰가무시, 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전남에서 법정 감염병이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지역감염병관리본부 창립을 위해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국비 4억원을 요청했으며, 도비 4억원을 더해 모두 8억원

을 1년 운영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본부는 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고, 10명의 감염 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해 이들이 향후 감염병 예방교육, 발생시 대응 및 관리 등을 맡게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외교과장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창궐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3일 "지난 5월 27일 한평에 이어 6월 15일 완도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

자 A(여·84)씨가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은 없었으나,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돼 질병관리본부에 영거시열을 확인,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이다. 주요 증상은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 구토, 설사, 근육통, 혈소판 감소 등이며, 증상이 중증화될 경우 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 발생 우려지역에서 수시로 진드기 채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 전남지역 첫 발생 지역인 한평에서 진드기를 채집해 바이러스를 분리

시험했으나 SFTS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전국 진드기 채집조사 결과 역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는 약0.5% 이하로 대부분의 경우 진드기에 물려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

SFTS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는 작은소참진드기, 뚝딱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등으로 이 가운데 작은소참진드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5~6월 왕성하게 활동한다. 주로 숲과 초원, 산비탈의 발 주변 등 야외에서 서식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수칙 실천 홍보활동 강화하고, 특히 시·군에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수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삼성 이재용 부회장 "메르스 사죄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날 삼성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가 나와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앙이 됐고 급기야 병원 부분 폐쇄에까지 이르지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국밥집서 간부 회의...쇼핑몰 열어 농특산품 판촉

광주시·전남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광주시 경제산업국 유용빈 국장과 직원 50여명은 이날 점심시간을 활용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을 방문, 오찬과 장보기 등을 하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오는 25일 오후 7시에는 운영한 광주시장과 시 협력관 이상 간부,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국밥집 저녁 회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로 침체된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및 광주 U대회 성공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자체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통해 23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전남산 우수 농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우리몸엔 우리농산물'이란 특별기획전 형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남산 우수 농특산품을 산지 직배송으로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받아들 수 있다.

특히 '남도장터'를 찾는 소비자들과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일 1~2개, 매주 8~16개 정도의 특가상품을 선정해 15~5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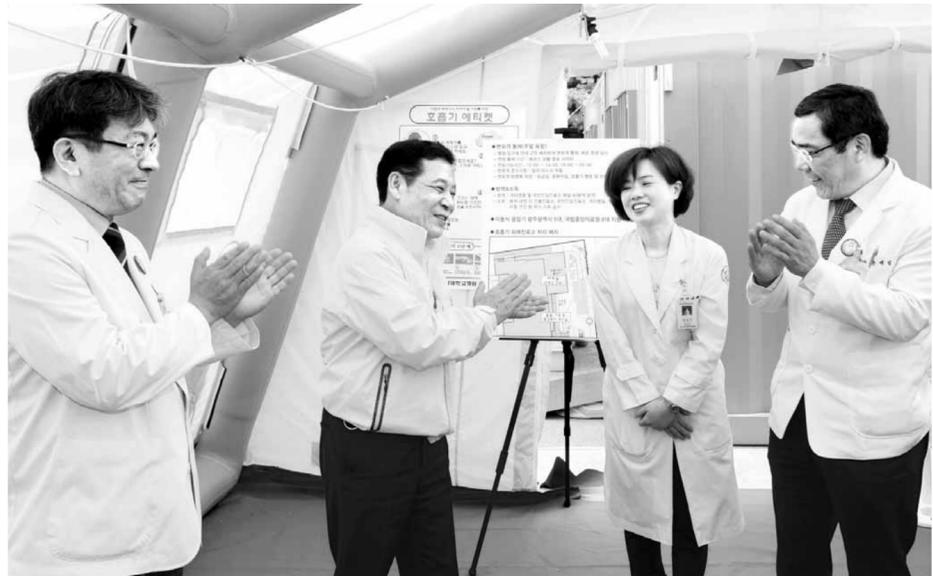
전남도는 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성군 농가를 위해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사주기 운동 전개, 보성 감자 공동 구매(22~24일)를 추진한다.

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도 산하 및 유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격려마를 주민은 물론 치료 의료진, 자택격리자, 능동감시자

등에 대한 우울, 불안, 불면 등 도민의 심리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스 환자 치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장현(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장이 23일 전남대병원을 찾아 메르스 환자 완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남대병원 김윤하 진료처장·윤시장·정수인 감염내과 교수·윤택림 병원장.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경숙 '변명 같은 사과'

"표절 지적 맞다는 생각"...현택수 "고소취하 않겠다"

신경숙 작가가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 작가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여론에 떠밀려 인정을 한 듯한 모양새는 독자들과 문학·출판계의 반응에 따라 표절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과 입장 표명은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다"는 것이 독자들과 문학계의 반응이다. 소설가 이용준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지난 16일이었지만, 최초 평론가 정문순이 의혹을 제기했던 시기로 보면 무려 15년이 흐른 셈이다.

더욱이 신 작가는 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엄마를 부탁해' 등 여러 작품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제목 도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씨는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비난을 받고 자꾸 자기검열을 하면서 앞으로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절필은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신 작가 표명에, 검찰에 고발을 했던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변명을 하는 느낌"이라며 "고발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면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출구 70m 441호 02-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